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2차전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26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V10’ 선배들, 우주의 기운 모아준다

조범현 전 감독·이종범·서재용·최희섭 등 챔피언스필드 찾아



을 염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2017시즌을 1위로 통과하면서 안방에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치렀다.

2014년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한 이후 처음 열리는 ‘가을 잔치’이자 8년 만의 한국시리즈라서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들, 타이거즈의 잔치날을 위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V10’ 현장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우승의 주역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8년 만의 한국시리즈에 함께 했다.

2009년 ‘최고참’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이종범은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으로 1차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종범은 2009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2안타 3타점의 활약으로 5-3 승리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시리즈 1차전 MVP가 됐다.

지난 시즌 은퇴 후 역시 마이크를 잡은 서재용은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관중석에서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서 위원은 2009년 마운드의 베테랑으로 상대 SK 와이번스와의 기싸움에서 특독히 역할을 했다.

2009년 무시무시한 화력의 중심에 있던 최희섭도 경기장을 찾아 후배들의 ‘V11’을 기원했다. 우승팀 ‘4번 타자’에서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그는

“후배들이 잘 해줄 것이다”며 특히 최형우의 역할을 기대했다.

‘빅 초이’ 최희섭이 이후 KIA의 4번을 맡은 좌타자는 ‘몬스터 초이’ 최형우가 처음이다.

최희섭은 “나보다 훨씬 좋은 선수다.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경험이 많으니 잘할 것이고 중심에서 잘해줘야 한다. 이런 경기에서는 베테랑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9년에도 이종범, 김종국, 이대진 선배들이 앞에서 역할을 잘 해주면서 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 베테랑의 힘이 필요하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주장’으로 선 후배를 아우르던 김상훈은 이번에는 코치로 우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선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현장에서 전력 분석 요원으로 활약했던 김상훈은 2군 배터리 코치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보조 코치로 힘을 보태고 있다.

우승 당시 열정적인 응원으로 ‘벤처 MVP’로 맹활약했던 박기남은 선수에서 스카우트로 변신해 8년 만의 한국시리즈를 지켜보고 있다.

우승을 지휘했던 지도자의 모습도 보였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V10’을 이룬 조범현 전 감독도 스포츠 동아 해설위원 자격으로 미디어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양현종을 키운 칸베 전 투수코치도 애제자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2009년의 기억을 떠올렸다.

2009년 우승 멤버는 아니지만 간절하게 바라던 ‘우승’을 지켜보기 위해 먼 길을 날아온 반가운 얼굴도 있다. 올 시즌 KIA의 해외 스카우트 역할을 맡은 브렛 필이 그라운드 밖 선수를 자처하고 있다.



의장님의 시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2차전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 앞서 시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필은 “나도 뛰고 싶다(웃음). KIA가 우승할 것이다. 잠실도 찾을 예정이다. 우승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 대통령 시구 연습땐 80%가 스크라이크”

덕아웃 T 특독

▲운과 실력 차이가 커요 = 3-5패는 남았지만 불펜진의 3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1차전. 헤타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왔던 심동섭은 1이닝 1피안타 3K로 생애 첫 한국시리즈 경기를 무사히 치르며 눈길을 끌었다. 심동섭은 “어깨가 아픈 뒤 스피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힘으로 승부했다. 시즌 때와 같은 마음이었다. 간장은 안 됐다. 운이 좋았

다”고 말했다. 심동섭은 이어 “운과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10개 중 8개가 스트라이크였어요 = 문재인 대통령의 시구는 KIA 선수단에게도 특별했다. 김기태 감독은 “큰 영광이다. 혹시 KIA 점퍼를 입고 있던 경호원들이 제지할까 봐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직접 공을 받았던 포수 김민식도 “큰 영광이다. 언제 내가 (대통령의) 공을 받아보겠냐”며 특별했던 시

구를 이야기했다. 시구 연습 당시 공을 받은 불펜 보조 최규상은 “연습 끝나고 말씀드려서 셀카를 찍었다(웃음). 청와대서 10일 정도 연습하셨다고 하더라. 잘 던지셨다. 연습하실 때 10개 중 8개를 스트라이크로 던지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힘이 들어갔던 문 대통령. 시구 평가를 해주라는 요청에 김민식은 “흠과 같이 잡아서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고통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 포수 김민식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한국시리즈 첫 경기 1회 수비에서 김민식이 파울 타구에 급소를 맞으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 이명기가 “민식이 사고났잖아요”라고 웃기는 했지만 당사자에게

는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김민식은 26일 전날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아 “고통을 나눠 주고 싶었다. 구도가 나올 것 같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잘 맞았으니까 =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플레이였다. KIA는 3-5로 뒤진 1차전 8회말에 무사 1·2루의 좋은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앞선 타석에서 두 개의 안타를 기록했던 안치홍의 타구가 3루수 허경민에게 잡히면서 병살타가 되고 말았다. 김기태 감독은 “지나간 거니까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자신감은 있더라. 자신 있었다고 한다. 감독 입장에서도 잘 맞은 타구였으니까. 잘 맞았으니까 더블 플레이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 인천 상대 3연승 도전

29일 K리그 클래식 36R

‘기적의 팀’ 광주 FC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한다. 상대는 인천 유나이티드다.

광주는 29일 오후 3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과 2017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스플릿 라운드 돌입 이후 광주는 반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1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나 2연승을 달리며 11위 전 남 드래곤즈(승점 33)를 4점 차까지 추격했다. 10위 인천(승점 34)도 5점 차밖에 있다.

최근 광주 분위기는 최고조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무패행진을 시작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잔류의 꿈을 키우고 있다.

K리그 첫 강등팀이었던 광주는 기적 같은 승적표를 펼치면서 클래식으로 복귀한 경험에 있다. 또 사람들의 예상을 뒤로하고 클래식 리그에서 광주의 축구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인천전에서 광주는 잔류 기적을 이루기 위해 3연승을 노린다. 이날 광주의 경기 결과에 따라 남은 두 경기에서 혼돈의 잔류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

‘학범슨 매직’을 펼치고 있는 김학범 감독은 “다른 팀 결과와 나머지 경기를 생각할 틈이 없다. 무조건 인천전을 마

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며 선수들의 집중력을 강조했다.

완델손이 3연승의 선봉에 선다. 그는 지난 35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지만, 앞서 3경기 연속 득점과 함께 5골을 넣으며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했다.

인천은 완델손이 데뷔전을 치렀던 상대다. 새로운 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3연승의 중심에서 골 사냥에 나선다.

인천은 최근 6경기 연속 무승(4무 2패) 부진에 빠져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고, 앞선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에서는 0-5로 대패하며 믿었던 수비마저 흔들렸다.

여기에 최중환을 비롯한 하정래, 김도혁, 박종진 등 수비와 미드필드의 핵심 선수들이 퇴장과 경고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한다. 광주로서는 인천을 코앞까지 추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방심은 금물이다. 광주 못지않게 인천도 최근 부진 속에 잔류에 대한 간절함이 남다르다. 뒷심도 좋은 팀인 만큼 광주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아야 한다.

광주가 인천전에서 3연승을 달리며 기적 같은 잔류 드라마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로저스, 이번엔 벵센으로

벵센 히어로즈가 오른손 투수 에스밀 로저스(32·사진) 영입을 확정했다.

벵센은 26일 “로저스와 팀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액인 150만 달러(약 16억 9000만원)에 2018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벵센의 중전 외국인 선수 최고액은 올 시즌 3경기 만에 팀을 떠난 선 오설리반으로 110만 달러(약 12억 3000만원)를 받았다

로저스는 2015년과 2016년 한화 이글



스에서 활약했던 투수다. 특히 2015년에는 10경기에서 완투 4번, 완봉 3번으로 6승 2패 75.2이닝 평균자책점 2.97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을 보여줬다.

그러나 로저스는 2016년 6경기에서 2승 3패 37.2이닝 평균자책점 4.30에 그쳤고,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한화를 떠났다.

/연합뉴스

롯데 조원우 감독 재신임

롯데 자이언츠가 올 시즌 팀을 5년 만의 가을야구로 이끈 조원우(46) 감독을 재신임했다.

롯데는 26일 조 감독과 3년간 총액 12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롯데 구단 측은 “조 감독이 5년 만에 팀을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키고 팀 역대 한 시즌 최다승(80승)을 달성한 지도력



을 높이 평가했다”고 재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2년 계약을 맺으며 거인의 지휘봉을 잡은 조 감독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8위에 그치며 5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3위로 반등하며 5년 만에 팀을 가을야구 무대에 올려놨다.

/연합뉴스